



《숲이 들려준 이야기》낸 국민대학교 김기원 교수

# 숲은 문명의 자궁,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구나 시작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처음으로 돌아가라' 였던가.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김기원 교수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라' 고 말한다. 어떤 표현으로도 그 중요함을 설명키 힘든 환경문제를 향한 일침이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이 자연, 즉 숲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인류의 삶과 문명은 숲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처럼 에덴동산이 생활터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그렇고, 나무 아래서 태어나고, 득도하고, 돌아가신 석가모니가 그렇습니다. 가상의 공간이고 상징적인 장소일지라도 많은 생물체 중에서 유독 나무인 것은, 그것이 생명과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믿는 인류의 진화과정도 결국 숲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래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숲과의 원만한 관계가 깨지게 됐죠.”

그는 환경오염의 중심적 현안이 숲의 파괴라고 지적한다.

인간의 '현재'를 만들어준 숲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발품을 팔아 이를 알리는 강의에 나서기도 했다. 단행본으로는 첫 작업인 《숲이 들려준 이야기》도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숲과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담은 책이다. 지난 2000년 숲에 관한 그의 강의를 들은 출판사 편집인으로부터 들어온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펴낸 것이다. 이처럼 숲과 인류문화와의 관계를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선 그다.

“산림자원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책이야말로 모두가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애착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책은 단순히 숲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삶에 숲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현재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예술, 문화, 문명은 모두 지대한 숲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의제 삼아 대학 강단에 선 지도 올해로 10년째다. 학년 구분 없이 교양과목으로 있는 '숲'이란 과목은 그 내용도 산림,

숲, 나무에 관한 것이다. 이론강의 위주지만 한두 번 정도는 수목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하기도 한다. 숲을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색깔 이야기 끝에 김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색깔 있는 강의'라고 소개한다. 따분하고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던 숲 이야기가 아니기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 반응이 좋은 편이다. 숲 자체보다 실제 우리가 접하는 문화와 접목시킨 설명에서 학생들은 흥미를 느낀다.

《숲이 들려준 이야기》는 기획만큼이나 독특한 소재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는 신 숲은 신전' '나무는 악기 숲은 콘서트홀' '나무는 예술품 숲은 박물관' '나무는 시 숲은 소설' 등으로 신화와 미술, 음악과 문학을 아우른 주제로 숲을 헤쳐가고 있다. 책을 위해 기획된 제목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쓰는 말이라고 하니 그의 강의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스트리아에서 5년 6개월 동안 유학생생활을 했습니다. 음악의 도시라는 명성답게 음악가들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베토벤이 자연과 교감한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전원> 교향곡의 무대가 된 빈 숲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컷병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하일리겐슈타트로 달려가 그곳에서 본 숲과 초원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베토벤뿐 아니라 슈베르트, 쇼스타코비치도 숲에서 모티브를 받아 작곡했습니다. 간단한 투어를 하는 와중에 가이드로부터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듣게 된 것은 저에게 황재였지요. 제가 미처 몰랐던 곡이었습니다."

그 곡이 작품 75번과 112번 <타피올라>다. 피아노곡인 이들과 곡 제목에 모두 나무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시벨리우스는 나무와 숲에 관련된 곡을 다수 창작했다. 우연치 않게 음악을 접한 김 교수는 가이드에게 시벨리우스가 이와 직접 관련해 작곡했던 증거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할 만큼 스스로의 연구와 신념에 적극적이었다.

《백설공주》《로빈후드》《헨젤과 그레텔》 등 그림동화의 무대와 배경에도 숲이 빠지지 않는다. 독일 대문호, 괴테도 식물 변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자연과 관련된 수채화를 600여 점 그렸을 만큼 시, 소설, 희곡 등 창작활동의 중요한 소재는 숲이었다. 이처럼 숲은 문화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존재다. 그는 그런 숲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찾아가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남겼다.

책에 실린 사진도 그가 찍은 것이거나 자료수집을 통해 얻은 것이 대부분이다. 숲의 역사 연구를 위해 서부개척 시절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철도와 도로를 놓기 위해 벌채하는 사진은 《숲이 들려준 이야기》의 표지가 됐다. 어른이 들어가 누워 있어도 자리가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나무 한그루를 도끼로

베던 사진이다. 이러한 '아름' 속에서 문명이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숲을 보호하자는 그의 결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1992년 발족된 '숲과 문화 연구회'를 2003년부터 이끌고 있는 그는 격월간지 <숲과 문화>도 발행하고 있다. 요즘도 그는 서너 달에 한 번씩 독자들과 함께 숲을 찾는다. 단순한 숲 탐방이 아니라 숲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귀중한 '체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매년 주제 하나를 정해 학술토론회와 미술전시회도 하는데 "올해는 소나무였지만 내년에는 무엇이 될지 기대된다"며 벌써부터 설레는 표정이다.

"처음 산림청에 '산림문화화'가 생긴 이래 명칭은 변해도 숲과 문화를 관장하는 부서는 존속돼 왔습니다. 숲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의 결과죠. 온전한 숲이야말로 모든 동식물의 완벽한 삶의 공간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생태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숲은 숲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숲을 좋아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기 답답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스스로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아파트 뒤에 산이 가까이 있어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전원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정기적으로 숲을 찾다니고 있으니 더할 나위가 없어요. 앞으로 더 욕심을 부리면, 숲에 관한 에세이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그는 특히 "숲의 역사도 다시 주목하고 싶다"고 했다. 가장 고심하고 연구를 많이 했으나 《숲이 들려준 이야기》 안에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하다보니 생략된 부분이 많았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그가 있는 국민대학교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야말로 '북악의 숲'이다. 창문을 통해 교정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의 눈은 북악을 넘고 오스트리아를 넘어 숲이 있는 모든 곳에 닿아 있다. 📖

취재 | 홍이현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숲이 들려준 이야기》 김기원 지음 | 효형출판 | 279쪽 | 값 14,000원